논어 3편 팔일 4장 · 원문·풀이

林放問禮之本。子曰：「大哉問！禮，與其奢也，寧儉；喪，與其易也，寧戚。」

독음 · 림방문례지본 자왈 대재문 례 여기사야 녕검 상 여기이야 녕척

쉬운 풀이(요약) · 예의 근본을 묻는 임방에게 공자는 사치보다 검소함, 장례의 매끈한 절차보다 진실한 슬픔이 낫다고 답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林 수풀 림 림 / 放 놓을 방 방 / 問 물을 문 문 / 禮 예도 례 례

之 갈 지 / 本 밑 본 본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

大 클 대 대 / 哉 비로소 재 재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其 그 기

奢 사치할 사 사 / 也 어조사 야 / 寧 편안할 녕 녕 / 儉 검소할 검 검

喪 죽을 상 상 / 易 바꿀 역 역 / 戚 겨레 척 척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